

작업실에 입주한 강아지



얼마 전 작업실에 작은 변화가 생겼다. 돌필군의 충동구매로 강아지 한 마리가 입주한 것이다.

이름은 '개필이' 😏

우리 작업실은 바닥도 지저분하고, 먼지도 많고, 유독한 물질도 자주 다루는 위험한 곳이다. 겨울에는 난방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.

더욱이 시커먼 남정네들만 모여있는 그곳에서 발끝을 즐즐 쫓아다니며 아랑 떠는 모습을 지켜 볼 때면 안쓰럽기까지 하다.(간혹 밟히기도 함)

그곳은 강아지에게 삶의 역경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서바이벌 체험장인 것이다. 살아남거라 개필아!